

## 지역 문학과 문화 자산으로서의 경춘선: 과거-현재-미래

오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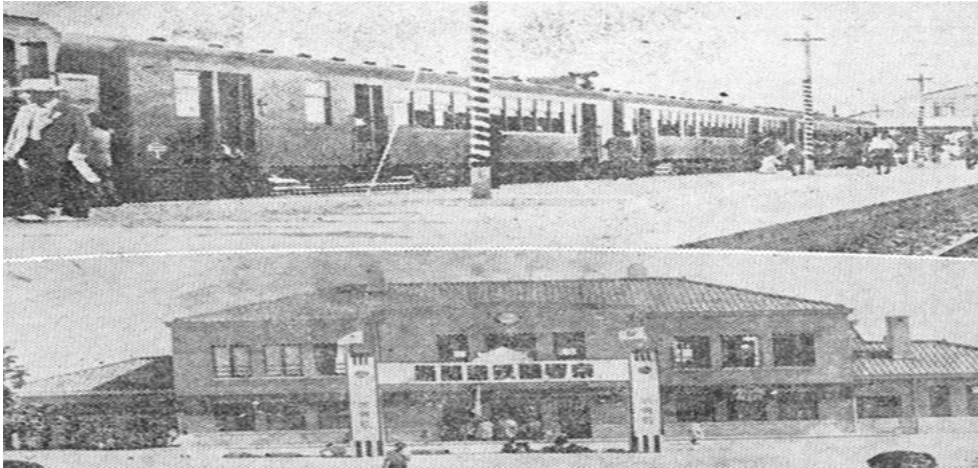
경춘선은 오랜 시간 동안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며 많은 이들의 삶과 추억 속에 자리 잡아 왔다.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서의 경춘선을 넘어서, 문학적, 문화적 자산으로서 그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의 대규모 SOC 인프라 확충 계획에 따라 도내 주요 철도망과 도로망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교통축으로서의 경춘선에 대한 연구는 그 시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경춘선은 강원도 진입의 관문이자 지역 간 연계의 중심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이번 교통 인프라 재정비와 맞물려 그 역사적 가치와 기능적 재조명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 1. 경춘선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경춘선은 1939년 일제강점기 시절,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철도로 개통되었다. 당시 경춘선은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다른 철도들과는 달리, 민간 기업인 경춘철도주식회사(京春鐵道株式會社)가 설립한 사설 철도였다. 경춘선의 개통은 서울과 춘천을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강원도 지역의 경제와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해방 이후 국유화되면서 경춘선은 국가철도로 편입되어 강원도 교통망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춘천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망으로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이다. 한국철도 문학과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작업과 학문에 정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ojh6407@naver.com

2010년 경춘선 복선 전철화가 이루어지면서, 옛 경춘선은 그 역할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복선 전철화로 인해 경춘선의 일부 구간은 폐선되었고, 기존의 역사(驛舍)는 문을 닫거나 새로운 용도로 전환되었다.



<사진1> 경춘선 열차가 성동역을 출발하는 장면 <동아일보>, 1937년 7월 23일 기사

그러나 경춘선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낭만과 추억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경춘선이 지닌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 문화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2. 경춘선의 문학적 이미지와 상징성

경춘선이 문학과 대중문화에서 상징하는 이미지는 다양하다. 우선, 경춘선은 '청춘'과 '여행'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한다. 이는 경춘선이 단순한 철도 노선이 아닌,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경춘선을 타고 춘천으로 향하는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으로부터의 탈출과 자유를 상징하며, 이는 곧 문학 작품 속에서 경춘선이 가지는 주요한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된다.

경춘선의 또 다른 이미지는 '낭만'과 '추억'이다. 과거 경춘선을 이용했던 이들에게 경춘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그들의 청춘 시절의 추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문학 작품 속에서 경춘선이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장소로 묘사되게

만들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춘선의 문학적 이미지와 상징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춘선이 등장하는 문학 작품들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경춘선이 가지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3. 경춘선의 대중문화로의 구현

경춘선은 수도권 근교 여행의 대표적인 이미지로서 경춘선은 청춘, 낭만, 추억, 자유를 상징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1970~1980년대의 대중가요와 영화, 소설 등에서 경춘선은 청년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대중들에게 자유로운 여행의 상징으로 각인되었다. 이 시기의 대중가요에서는 '춘천 가는 기차'라는 노래가 큰 인기를 끌며 경춘선이 가진 낭만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MBC 강변가요제'는 경춘선 권역의 수려한 경관을 무대 삼아 노래하는 청춘들의 공연을 볼 수 있었다. 경춘선은 단순한 이동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경춘선은 또한 대학생들의 MT와 같은 단체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강촌, 대성리, 청평, 가평 등의 역은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MT 장소로 각광받았으며, 이곳에서의 경험은 경춘선의 낭만적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러한 경춘선의 대중문화적 이미지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많은 이들이 과거의 경춘선을 추억하며 그 시절의 감성을 되새기곤 한다.

### 4. 경춘선의 문화 자산으로서의 활용 방안

경춘선의 폐선부지와 역사(驛舍)는 현재 문화적,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춘선 폐선 구간의 활용 사례로는 서울의 '경춘선 숲길'과 '화랑대역사 전시관', 경기도의 '청춘역 1979'와 '음악역 1939', 춘천의 '김유정역' 등이 있다. 이들은 폐역과 폐선부지를 문화 공간, 관광지, 체험시설로 변모시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경춘선의 폐선 구간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 재생을 넘어, 지역 사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진1> 「대학생 MT 마을 대성리」, <조선일보> 1985년 4월 10일 기사

지역 사회의 협력,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경춘선의 가치는 단순한 관광 자원을 넘어, 지역 문화와 문화 자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경춘선을 미래문화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춘선의 학술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경춘선 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이다. 경춘선의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홍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춘선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레트로 인문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옛 기차역을 복원하고, 역사적 자료와 사진 등을 전시하여 경춘선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경춘선의 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춘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다. 경춘선과 관련된 문학 작품, 대중문화 자료, 역사적 기록 등을 모아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춘선의 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 목록은 교육적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경춘선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후대에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경춘선에 특화된 문화콘텐츠 개발’이다. 경춘선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한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경춘선과 관련된 문학 작품과 대중문화를 소재로 한 문학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재발견하고, 경춘선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춘선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 낭독회, 작가와의 만남, 문학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경춘선의 문화적 이미지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네 번째는 ‘경춘선과 연계한 관광 루트의 개발’이다. 옛 경춘선 구간을 따라 주요 역사와 문화 자산을 연결하고 관광 루트를 개발하여, 경춘선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관광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경춘선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경춘선을 지역 문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하여 경춘선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춘선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이다. 경춘선을 주제로 하는 연구논문 및 단행본 출간, 강연, 워크숍, 구술 채록을 위한 경춘선 구술사 작업 등을 실시하여 경춘선 학문 체계의 정립을 구축한다.

## 5. 경춘선의 미래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춘천의 제2경춘국도 등 대형 철도사업과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은 경춘선 폐선부지의 문화적 재활용과 맞물려, 강원도 지역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경춘선이 과거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며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면, 향후 확충될 철도 및 도로망은 이를 확장하여 강원도를 수도권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경춘선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경춘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춘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춘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연구는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문학적 가치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경춘선의 문화 자산화 과정은 단순히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지역 문화를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경춘선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학술 연구와 문화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경춘선은 미래의 문화유산으로서 더욱

빛날 것이다. 특히, 경춘선을 지역 문학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경춘선이 단순한 교통 수단의 역사를 넘어서, 지역 사회와 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경춘선은 미래의 문화유산으로서 더욱 빛날 것이며, 지역 문학과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